

내년 수완지구 중학교 입학생 집 가까운 학교 간다

고실중학교 개교 25개 학급 816명 정원...과밀학급 '숨통' 서부지원청, 통학거리 등 고려 학교 배정 기준 변경

어등초·하남초 병설 유치원 9월 개원...각 2개 학급 50명

내년부터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는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 내 중학교 입학 배정이 바뀌게 된다. 중학교 하나가 신설되고, 정해진 중학교로만 입학할 수 있었던 기존 중학교 배정 기준도 바뀐다. 24일 광주시서부교육지원청 등에 따

르면 서부교육지원청은 수완지구 내 중학교 수용 여건 변화에 따라 2020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 배정 방식을 개선한다. 이는 광주지역 대규모 택지지구인 수완지구에 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중학교 수용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학급당 학생수를 낮춰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지원청의 설명이다. 우선 내년 1월 수완지구 내 일반 교실 24실을 포함해 117실, 부지 1만2997㎡, 건축 면적 3718㎡, 연면적 1만1553㎡ 규모의 '고실중학교'가 준공된다. 일반 24학급, 특수 1학급 등 학생 정원은 816명으로, 202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게 된다. 고실중이 개교하면 수완지구 내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실중 개교로 인해 2020학년도

부터 정해진 중학교로만 진학했던 입학 배정 기준도 변화하게 된다. 수완지구 내 7개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고실중을 제외한 4개 중학교로 진학했다. 고실중과 성덕초 졸업생은 성덕중으로만 진학했고, 은빛초와 신가초는 수완중, 새별초와 장덕초는 장덕중, 수완초는 수완하나중으로 입학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지원청이 중학교 입학 배정 기준에 변화를 주면서 수완지구 7개 초등학교는 각각 2-3개 중학교로 분산 배정된다.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고려해 자신

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통학거리가 1.5km 내외인 가까운 중학교로 배정하고, 재학생 수 규모에 따라 적절한 분산 배치를 위해 각 초등학교당 2-3개 중학교로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설되는 고실중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이 중학교로 배정되는 각 초등학교 학생 수를 비슷한 규모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원청은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수완지구 각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중학교 입학 배정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접수된 의견을 수렴하

고 검토해 향후 중학교 입학 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고실중이 개교하면서 수완지구 내 과밀학급 문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학거리와 학생들의 적응문제 등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중학교 입학 배정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광산구에 어등초등학교와 하남중앙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오는 9월 개원한다. 유치원당 2개 학급, 정원 50명 규모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개성만점’ 나만의 티 어때요”



광주중흥초등학교 '중흥골 감사나눔축제 한마당'에 참여한 학생들이 최근 자신들이 그림을 그려 넣어 만든 티셔츠를 선보이고 있다. 이날 행사는 전교생이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생회가 준비한 '감사의 방', '나만의 티 만들기'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중흥초 제공>

광주대, 학교 밖 청소년 수어교육 성과

남구 지원센터, 농아인협회 컬링대회 통역 봉사 참여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수어교육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대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남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25일 광주시 농아인협회에서 진행되는 컬링대회에 수어 봉사자

로 참여토록 했다. 광주대는 지난 4월부터 남구 꿈드림 센터에서 일주일에 2회,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를 방문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수어 봉사활동은 오는 28일 수화동역사 수료식을 갖는 학교 밖 청소년 4~5명이 서구수어통역센터와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대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남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위해 개인 상담과 직업 체험, 학습 지원, 취업·자립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랑의 밥차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학교 밖 청소년들과 참여하고 있다. 광주대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임형택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수어교육을 통해 자신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미생물 농법' 세계 석학들도 관심

김길용 교수, 병충해 막고 땅심 키우는 'GCM 농법' 개발

미국·폴란드 학자 방문...농생명대, 공동연구 업무협약

농작물 재배에 유용미생물을 활용하는 미국과 폴란드의 세계적인 학자가 최근 전남대학교의 미생물 농법을 살펴 보기 위해 방문했다. 전남대 김길용 농생명화학학과 교수가 개발한 'GCM 미생물 농법'은 젤라틴과 키틴을 분해해 먹는 미생물을 배양해, 병충해를 막고 땅심을 기르는 친환경 농법이다. 이날 미국 UC. 데이비스대학의 아키프 에스칼렌(Akif Eskalen) 교수는 "GCM 미생물 농법을 미국 캘리포니아 현지 농작물 재배에 적용하기 위해 예비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유용미생물 농법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 농가를 직접 보고자 방문했다"고 밝혔다.

폴란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대학의 마시에 왈자크(Maciej Walczak) 교수도 "김길용 교수의 GCM 미생물 농법 연구결과를 폴란드 농업에 활용하고자 방문했다"고 말했다. 농생명대(학장 안기완)는 이들과 대학간 다양한 분야의 공동연구와 학생 및 정보교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남대 농생대의 세계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유학생들 제주서 '한국 알기'

중국·베트남 등 4개국

한국 학생 등 60명 4박5일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가 외국 유학생과 한국인 재학생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숙박을 하며 하며 색다른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The Jeju The Korea'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체험행사와는 차별화된 유학생-한국 학생 교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호남대 대학혁신사업단 주관과 국제교류본부 주최로 24-28일 4박 5일동안 이뤄지는 'The Jeju The Korea' 프로그램에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한국의 4개국, 총 6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9개조, 5개그룹으로 나



누어 제주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숙박과 체험 행사에 참여하고, 다양한 미션과 팀워크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호남대 구성원'이라는 소속감과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정문 앞 상가1층 101, 102, 109, 110호
 - 분양평수 70평, 실평수 36평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
 -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 문의. 010-6834-7400

